

# 전북탄소산업발전위, 11개 정책과제 발굴

### 도, 중간보고회 개최 국가정책화 방안 모색

전북도는 12일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회를 개최해 지난 2월 위원회 출범 이후 4개월간 총 11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에서 약 4개월에 걸쳐 발굴해 낸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발굴과제의 실현가능성 및 국가정책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중간보고회를 진행되었다.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는 탄소정책·탄소융복합·탄소소재·나노탄소분과 등 4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되어 정책발굴을 담당해 왔다.

이들 4개 분과는 그동안 분야별로 전북 탄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큰 틀의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매월 두세 차례의 기획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총 11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이번 위원회를 통해 기본방향과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각 분과는 발굴과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획 작업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과제들로는 전북



12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중간보고회에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탄소기업, 연구기관 등 참석자들이 중간보고회를 갖고 있다.

의 탄소산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온라인 포털서비스로 제공하는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 구축과 탄소 대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C-STAR 기업 육성'이 특히 눈

에 띈다. 또 관계자는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이번 정책과제 중 일부과제들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내용 보완이 필

요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관련 데이터와 사례 분석, 모의실험 등을 통해 완성도를 최대한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중증알레르기 천식 연구 발표 전북대병원 김소리 교수, 국제학회서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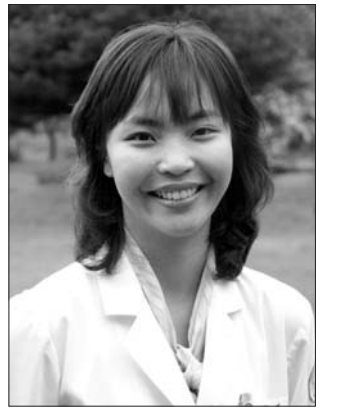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김소리 교수(사진)가 중증알레르기 천식 연구로 유럽에서 열린 국제알레르기학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2일 전북대병원에서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에나에서 열린 '2016 European Academy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EAACI) Congress'에서 우수연재상(Best Abstract Prize)을 수상했다.

EAACI Congress 우수연재상은 연구의 우수성 및 발표내용의 발표내용과 토의 과정 등을 평가해 시상이 결정되며,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잠재력이 인정되고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도에 따라 현장에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된 연재에 주어지는 상이다.

김 교수의 이번 연구주제는 중증 알레르기 천식의 병태 생리에 있어 생체 내 항바이러스 인산화효소로 알려져 있는 PKR(double-stranded RNA-activated protein kinase)의 역할과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밝힌 연구로 이용철 교수, 김동임 박사, 박해진 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현재까지 천식 및 중증 천식에서의 기능이 불명



확한 PKR이 단순한 생체 보호 기능이 아닌 병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 이는 선행연구에서 중증 천식에서 중요한 병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소포체 스트레스와 연관성을 확인했다.

특히 이를 통해 PKR 조절 물질이 새로운 천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김영재 기자

# "전주만의 김치문화콘텐츠 개발을"

### 전주학술대회에서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김치 관련 인프라와 문화자산을 활용해 전주만의 독특한 김치문화콘텐츠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진 세계김치연구소 연구개발본부장은 12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18회 전주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전주의 김치관련 문화자원과 융합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전주는 오랜 기간 축적된 지역 유무형의 전통문화자산과 잘 연계되면서 비빔밥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등 개별음식들이 브랜드 가치를 지닌 전주음식으로 자리매김했고, '유네스코 음식문화 창의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전주만의 특화된 김치문화콘텐츠 개발과 전주김치의 산업화·상품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특히 전주는 인근지역 김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호남 각지의 토속 김치문화가 유입되기도 하면서, 남도김치와 유사성과 차별성

을 동시에 지니는 차별화된 김치문화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 한 김치교육훈련관인 국제한식조리학교와 한옥마을 내에 김치 만들기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체험시설,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전통문화관 내 체험조리시설 등 김치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별 식품 명인 지정 현황에도 전주가 국내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많은 6명의 식품명인을 보유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전주인근지역 토속김치의 레시피와 이름, 스토리로 발굴해 전주만의 김치문화 자원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잘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하면 체험, 전시, 축제, 외식 메뉴 등 지역 문화산업 콘텐츠로 산업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전 등 조선시대 공공건물은 조선시대 의례용 김치와 국가의례용 고대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주의 풍류문화에 대한 스토리를 정리해 그에 맞는 풍류상차림과 김치를 조합해 체험, 전시, 축제, 음식집 메뉴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또 "전주만의 차별화된 김치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전주 김치의 역사성과 물질적, 문화적 속성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전주김치문화 콘텐츠 추가 발굴과 유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재 기자

###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검거

원주경찰서는 12일 자전거 배낭여객 중인 대학생 2명을 치고 도주한 혐의(특기법위반)으로 권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날 30일 완주군 봉동 미곡처리장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 운전자들을 운전 중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및 핸들로 치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은 바로 112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사건 당시 부상 정도는 할과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진수 기자

### 보이스피싱 중국인 부부 덮이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를 속아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 중인 노인의 돈을 훔치려 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보이스피싱으로 노인을 속여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훔치려 한 혐의(사기 미수) 중국인 A(31)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B(81·여)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55분께 "개인정보 유출됐다"며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 3000만원을 찾아 싱크대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B씨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현금 3000만원을 인출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행에서 B씨를 만나 보이스피싱 사건을 직감, B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B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가방을 들고 중국어로 통화하고 있던 A씨 등 피의자 2명을 발견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인진수 기자

### 편의점·식당 현금 훔친 가출청소년 2명 붙잡아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편의점과 식당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송모(18)군을 구속하고 임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군 등은 지난날 27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모 편의점 유리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해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업을 마무리한 업체만 노려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며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매장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날 10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충남 대전에서 모두 7회에 걸쳐 현금 140만원과 담배 4갑, 손목시계 2점 등 총 2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안진수 기자

# 취업 미끼 6000만원 가로챈 목사 징역형

자동차 회사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쟁건 교회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래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의 사위를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쟁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한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0년 7월 전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지인 A씨에게 "자동차 회사 공장장하고 친한데 사위를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 등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7일에도 유명 자동차 회사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박씨는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고향 후배의 사촌형인 A씨에게 "자동차 회사 노조위원장을 잘 아는데 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